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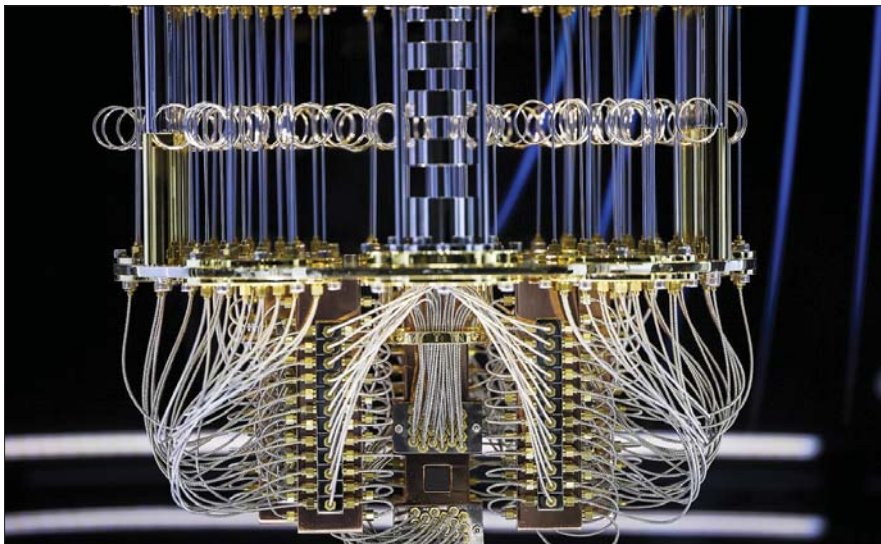
양자컴퓨팅, 다시 ‘붐업’… 정책 기대감에 ETF 수익률 급증

李 대통령 ‘100조 AI 투자’ 공약에 양자기술 포함… 투자자 ETF 관심

美 기업 ‘디웨이브퀀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6배 증가한 1500만 달러 엔비디아 젠슨황 ‘낙관론’ 힘 실어

양자컴퓨팅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기술 상용화에 대한 낙관론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100조 AI 투자’ 공약에 양자 기술이 포함되면서 관련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양자컴퓨팅 관련 ETF(5종목)는 평균 38%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ETF 시장 내에서도 이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선두 상품으로는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양자컴퓨팅 TOP10’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기록 중이다. 이 ETF는 미국의 대표 양자컴퓨



IBM의 양자컴퓨터 ‘퀀텀’.

/뉴시스

팅 기업 10곳에 집중 투자하며, 높은 수익률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KIWOOM미국양자컴퓨팅’, ‘RISE 미국양자컴퓨팅’, ‘KoAct 글로벌양자컴퓨팅액티브’, ‘PLUS 미국양자컴퓨팅TOP10’ 등 다양한 관련 ETF가 국내에 상장돼 있다.

ETF 강세의 배경으로는 미국 현지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반등도 꼽힌다. 실제로 양자컴퓨팅 선두 기업들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 디웨이브퀀텀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1500만 달러(약 207억원)를 기록했고, 아이온

큐 역시 76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 추정치를 상회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11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이 실용화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기술 낙관론에 힘을 실은 것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그는 프랑스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비바테크놀로지’ 기조연설에서 양자 기술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이온큐는 같은 기간 3230만달러, 디웨이브퀀텀은 54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자컴퓨팅 테마의 흐름에 국내 정책 환경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양자컴퓨팅·AI 반도체 등 미래 기술 개발과 전국 단위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인재 10만 명 양성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기술 낙관론과 정책 수요가 맞물리며 ETF 테마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테마형 ETF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내비쳤다.

윌 린드(Will Rhind) 그레닛세어즈 CEO는 “양자컴퓨팅은 단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수년간 투자 수요가 지속될 섹터며, ETF를 통해 이 같은 흐름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메타버스, 2차 전지, BBIG 등 유사 테마가 쏟아졌던 사례처럼, 상품이 우후죽순 출시되면 테마 자체가 희석되거나 수익률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자컴퓨팅이라는 테마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으려면 ETF 상품 간의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며 “아직은 양자 기술이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신343’ 기반 안정적… 연 4회 배당 시행

IPO 간담회

대신밸류리츠

계열사 임대 트리플넷 마스터리스 구조 343강남 장기보유 안정적 수익 추구

“대신밸류리츠는 그룹의 금융·부동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성장형 리츠로 자리매김할 것”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신밸류리츠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환원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밸류리츠는 서울 중구 을지로 역세권에 위치한 ‘대신343’ 빌딩을 핵심 자산으로 한다. 트리플 역세권 입지와 도심권역(CBD) 프라이م 오피스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건물 운용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특히 ‘대신343’은 대신파이낸셜그룹 전 계열사가 장기 임차하고 있는 트리플넷 마스터리스 구조가 적용돼 있다. 임차인이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금, 유지보수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신밸류리츠

임대인은 순수 임대수익만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단일 임차인이 장기 계약으로 입주하고 있어 공실 위험이 사실상 해소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해 투자자 수익 제고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갖췄다. 매년 2.75%의 임대료 인상률을 반영해 꾸준한 수익 흐름을 확보하고 있으며, 임대차 3년 차부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인상도 가능해 경기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대신밸류리츠는 상장 후 8월 결산 기준 11월 첫 분기배당을 시작으로 연 4회 분기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배당수익을 제공하고 복리 효과를 동시에 추구

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도 병행된다. 그룹 차원의 실물 자산과 개발 자산을 중심으로 우량 자산을 지속적으로 편입하는 한편, 보유 자산의 성격에 따라 운용 전략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343강남’ 등 코어 및 코어플러스 자산은 장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소봉빌딩’과 ‘드레스가든’ 등 일부 중형 자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매각해 특별배당을 시행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적극 활용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대신밸류리츠와의 시너지를 통해 수익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대신밸류리츠는 상장 5년 후 2조원 규모의 자산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3년간 신규 상장된 리츠들은 금리 인상에 상장해 추가 흐름이다소 불안정했지만, 대신밸류리츠는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가 흐름이 기대된다”며 “외부 환경의 유리한 조건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추가 안정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배전반 하나로 코스닥 상장 기술과 시장 함께 고민하는 전력 솔루션기업 자리매김”

코스닥 CEO 인터뷰

김영일 지투파워 대표

‘AI 배전반 2.0’으로 시장지위 강화 BIPV 등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추진

배전반 하나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있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스마트 배전반’을 앞세워 전력기기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지투파워 이야기다. 김영일 대표는 “기술과 시장을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투파워는 AI 기반 상태감시진단(CMD)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시스템, ESS, 인버터 제조 및 설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기술 중심 IT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 대표가 창업에 나선 배경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을 컨설팅한 경험이 자리한다. 그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임직원의 헌신과 기술 중심 사업 철학, 투자자들의 신뢰가 현재 지투파워의 토대”라고 말했다. 특히, 인증 기반 전략과 공급납품 경험은 회사 성장의 발판이 됐다.

지투파워의 주요 사업은 CMD 기술을 수배전반, 태양광 시스템,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접목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올해는 ‘AI 배전반 2.0’으로 불리는 지능형 스마트배전반을 선보이며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및 액침냉각

형 ESS 시제품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도 빠지지 않는다. AI와 사물인터넷(IoT), 엣지 디바이스(Edge Device) 설계 등 분야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성능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조달우수제품인증, 혁신제품인증 등을 다수 확보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인증과 실적을 바탕으로 관급시장 내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투파워의 매출은 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36억원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은 42억원으로 627% 증가했다. 현재 주주잔고는 1200억원 수준이다.

그는 경영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초기에는 좋은 제품에도 매출 부진이 힘들었지만, 철저한 시장 분석과 인증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현재는 배전반 관급 시장에서 연속 주주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투파워는 지난 2022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하며 창업자들의 꿈을 이뤘다. 김 대표는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라며 “태양광·ESS·EPC 사업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25일 여의도에서 열린 액침냉각형 ESS 시제품 발표 전시회에서는 직접수생식 방식으로 배터리 화재 예방에 강점을 지닌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전기화 시대, AI 산업 확산,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투파워의 사업 모델은 매우 유망하다”며 “주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매출 성장과 이익 창출, 미래 신사업 발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키움증권, 임직원 걷기로 ESG 실천

1억보 걸음기부 캠페인 시즌2 진행 한강 생태계 보존에 2000만원 기부

키움증권은 6월 한 달간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1억보 걸음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2’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걸음기부 캠페인은 걷기를 통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임직원들은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걸음을 기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키움증권은 임직원들이 1억보를 달성하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한강’은 여의도 인근 환경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단체다. 전달된 기부금은 생물 다양성 증진

과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활용되며, 향후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으로도 연계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키움증권은 매일 걸음기부에 성공한 임직원에게 개근상으로 히어로즈 보냉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진행된 ‘키움과맑음 시즌1’에서는 1억1639만보를 달성해 약 1만652kg의 탄소 저감 효과를 기록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613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로 평가된다.

/원관희 기자